

축산업계

소식

'92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키로 농지 소유상한 5~10ha로 확대

정부는 '93년까지 지정키로 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92년 3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지역과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평야지는 10ha, 중간지는 7ha, 산간지는 3ha 이상 농지가 집단화되어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지면적의 50% 정도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절대농지와 같이 농지전용이 까다로운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 135만 ha 줄어든 90만ha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던 상당수 농지가 전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 투자를 집중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 10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 가구당 경지면적의 확대가 필요해 자경농민의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현재 3ha에서 5~10ha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지역실정에 따라 공장이나 택지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기계가 어려운 한계 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하여 공장용지나 택지, 초지, 과수원 등으로 개발해 분양해 주는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UR협상 비교역적 품목 대폭 축소 쌀 등 최소한 식량안보 품목만

정부는 UR농산물협상에서 15개 품목으로 선정했던 비교역적(NTC)품목을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품목만 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ATT에 제출했던 우리나라 오퍼리스트에 NTC품목 중 닭고기, 돼지고기, 우유, 고구마, 감자 등 대부분 품목은 제외되어 전면 수입개방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UR 농산물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 브뤼셀회담을 결렬시켰다는 비난을 듣고 있어 또 다시 UR이 결렬될 경우 쌍무적 개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오퍼리스트를 제출한지 3개월도 안되어 대응전략이 변화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지를 공장, 주택용지로 쉽게 전환토록 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농지와 간척지 등을 공장용지와 주택용지로 과감하게 전환시켜 농민과 제조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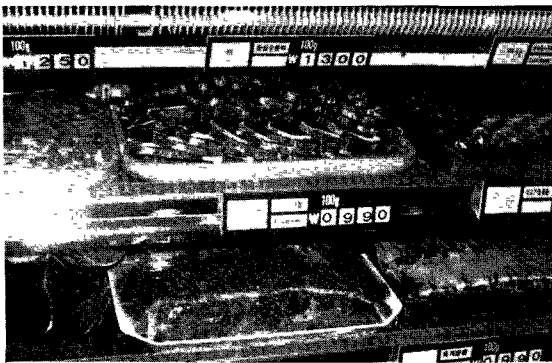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현재 공장용지 1평에 60~7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면서도 이마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농민도 비싼값에 농지를 팔 수 있고, 제조업자도 공장용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축산유통, 무역회사 설립 축협 자회사로

축협중앙회는 축산물 판매를 전담할 (주)한국축산유통과 축산물 수출입업무를 담당할 (주)한국축산무역을 자회사로 설립키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

축협 자회사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와 축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주)한국축산유통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축산소비확대와 상품화 연구 ▲정부 위촉사업 등으로서 한우포장육 판매가 주종사업이다. (주)한국축산무역은 ▲농축산물 수출입업 ▲배합사료, 단미사료 및 사료원·부자재 수출입업 ▲종축을 포함한 가축수출업 ▲축산관련 기술도입 및 수출 ▲무역대리업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91년 쇠고기 도입물량 8만4천톤 수입의무쿼터량 보다 2만2천톤 많아



농림수산부는 금년 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을 지난해와 같은 8만4천톤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물량은 미국 등과 쌍무협상을 통해 합의한 수입의무쿼터량 6만2천톤보다 2만2천톤이나 증가시킨 양이다. 이는 금년 총소비 예상량 17만8천톤의 47%에 해당되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수급조절용 돼지고기 수입 검토 돼지고기 가격안정 위해

정부는 돼지고기가격 상승대책으로 수급조절용 돼지고기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 돼지고기 수급이 4만톤 정도가 부족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급안정과 돼지고기가격 안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수입될 물량은 3만톤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양돈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농협 취급 농산물 30%이상으로 확대 농산물유통 개선대책 마련

농협은 농산물 유통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오는 '93년까지 2조2천여억원을 투입하여 농협이 취급하는 농산물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출하반을 2만4천개로 늘리고 산지 농산물 출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집하장, 개량저장고, 저온창고, 선과장을 늘리기로 하였다. 또 무우, 배추, 마늘, 양파, 파의 발매기 수매를 확대하고, 출하선도금 비율을 20% 확대키로 했다.

걸프전쟁에 병아리 이용 화학공격 경고용으로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의 최첨단 장비들과 함께 병아리가 이용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첨단 가스탐지장비들의 측정결과를 보조하여 화학공격에 경고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버프트라는 별칭의 병아리는 유독가스에 사람보다 먼저 죽게 되어 유독성의 척도가 된다고 한다.